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1>보도자료</h1>		 대한민국	
보도 일시	이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쪽	
배포 일자	2020. 9. 23. (수)	담당 부서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담당 국장	고위공무원 이원익(02-748-6200)	담당 과장	서기관 고경국(02-748-6320)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7일 개최 예정

- 국방부는 9월 27일 (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 (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중국군 유해 인도식」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의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 측으로 인도하기 위한 행사로써, 우리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99구의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바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12월 사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17구 (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103구, 유품 1,368점 포함)를 중국 측으로 인도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한·중 양측은 9월 26일 (토) 10시, 올해 중국 측으로 인도할 중국군 유해에 대한 「유

해 입관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과거보다 많은 수 ('14년 제외)의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게 된 것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작년부터 DMZ에서 이루어진 유해발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DMZ 내 유해발굴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유해가 발굴되어 송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중국군 유해송환 현황: '14년/437구, '15년/68구, '16년/36구, '17년/28구, '18년/20구, '19년/10구
- 한·중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실시해 왔으며, 수십 년 동안 생사를 모르던 전사자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現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同 인도식을 거행키로 하였습니다.
-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방부는 한·중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와 역내 평화증진을 위한 협력과 공조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第七届中国人民志愿军遗骸交接仪式

将于9月27日举行

9月27日上午10点，大韩民国国防部将于仁川国际机场在朴宰民韩国国防部次官与常正国退役军人事务部副部长共同主持下举行第七届中国人民志愿军遗骸交接仪式。

中国人民志愿军遗骸交接仪式作为向中方移交6·25战争期间战死的志愿军遗骸与相关遗物的事宜，今年是双方实施的第七次交接。韩国国防部从2014年至2019年已向中方移交了共599具遗骸。

韩国国防部将通过本次中国人民志愿军遗骸交接仪式向中方移交从2019年3月至11月韩国军队发掘的共117具（箭头高地发掘遗骸 103具，包括1, 368件相关遗物）中国人民志愿军遗骸。在此以前，韩中双方将于9月26日上午10点共同举行中国人民志愿军遗骸装殓仪式。

比过去向中方交接更多数量的遗骸(2014年除外)可以评价为根据《9·19军事协议》从去年开始¹在非武装地带（DMZ）实施遗骸发掘的成果，

期待今后通过²在非武装地带（DMZ）实施遗骸发掘而能够移交更多数量的遗骸。

韩中两国在尊重国际法和人道主义精神的共识为基础，每年举行了中国人民志愿军遗骸交接仪式，为了几十年来不知生死的战死者遗骸回到家属的怀抱，决定尽管在目前的新冠肺炎(COVID-19)疫情之下今年仍然举行交接仪式。

韩国国防部希望以本次交接仪式为契机，通过韩中两国增进信赖、发展面向未来的合作关系，向国际社会传达为促进韩半岛与域内和平而合作的信息。